

華南 東晉墓出土의 銅帶銙飾

金 元 龍

考古學報(一九五七年四期)에 依하면 一九五六年 江蘇省 宜興에 있는 一東晉時代古墓에서 青銅製 帶銙 數片이 發見되었는데 그 形式은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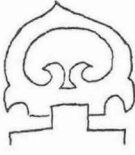


그리고 이밖에 方形銙에 方形垂飾을 매단 것도 數例 있는데 녹이甚해서 文樣을 仔細하게 알아 볼 수 없으나 所謂 怪雲文系統인은 分明하다.

그런데 圖示한 銙飾은 百濟에서는 꼭 같은 것이 公州 宋山第一號墳에서 銀으로 만든 것이 二箇 發見되었었고 또 新羅에서는 純金製가 하나씩 全部 나오고 있다.

이 三者가 各各 材料는 다르나 形態가 꼭 같은데 東晉 것은 西紀四世紀, 百濟, 新羅 것은 卽라서 五世紀後半葉 迄어서 六世紀前半葉에 該當 되는 것이다.

그런데 大部分의 古新羅古墳에서 나오는 帶銙는 前記 形式을 더 簡化한 圖示한 바와 같으며 形式上으로는 前者로부터의 簡化 또는 後來의 것이 分明하다.



이러한 簡化는 百濟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는 新羅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至今 尙자기 알 수 없으나 何如든 帶銙가 華南에서 百濟로 들어와 百濟에서 다시 新羅로 들어온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.

그러면 그 渡來의 時期가 問題가 되는데 百濟에서는 四世紀後半葉에 使節을 東晉으로 보내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中國의 服飾이 들어 왔을 것은 틀림 없다. 그러나 宋山里第一號墳의 銀製帶銙를 四世紀까지 올릴 수는 到底히 없다. 亦是 南韓에서 古墳文化가 자

리를 잡고 發展하는 것은 五世紀, 六世紀라고 보아야 한다. 古新羅時代의 工藝가 大端한 發達을 본 것은 事實이고 또 百濟의 遺物이 남아 있는 것이 적어 新羅가 언제나 하이라이트를 받지만 百濟로부터 건너가는 影響이 看過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百濟美術에 對해서 直接的인 影響을 준 大陸의 存在도 있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. 要컨대 누가 먼 저니 나중이니 따지는 것보다 古代에 있어서는 地域을 超越한 汎極東樣式이라 할까 하나의 共通된 基本的 樣式이 存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現實的인 것이다.

百濟 石製小像 斷片(其二)

黃 壽 永

(2) 滑石如來立像片: 高九cm 幅八cm 厚三cm에 不過한 小片으로서 一九五九年三月二五日 扶餘邑 舊校里 鄉校菴寺址(朴永培氏 家屋 東北方)에서 洪再善君에 의하여 拾得된 것이다. 오랫동안 土中되었던 때문에 石面은 浸蝕되어 小孔이 全面을 덮고 있으나 刀痕은 分明히 남아 있다. 이

